

8. CIA 보고서란 무엇인가? 출처는 어디이며,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CIA 보고서" (<http://www.rescue007.org/docs/CIAReport.pdf>) 는 1991년 6월 제시 헬름스 상원 의원의 요청으로 미 상원 외교 위원회 공화당 의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구 보고서이다. 이것은 미 중앙 정보국 (CIA) 와 미국 국가 안전국 (NSA) 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CIA에 제출된 후 한국 국회의 야당 수반인 손 세일에게 흘러 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국회 (입법) 회기동안 KAL 007기에 탑승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대한 더 심화된 토론 내용과 문서가 담고 있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역사

아브라함 쉬프린은 소련 연방에서 이민해 온 이스라엘 이주민으로 소련 연방과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련 교도소와 강제 노동 수용소 캠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그는 또한 KAL 007기 탑승자 중의 한 사람인 래리 맥도날드 하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이기도 했다. 쉬프린은 미국 상원과 하원 위원회 앞에서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 캠프에 대해 수 차례 증언한 바 있다.

1990년 6월, 소련 측 정보통을 통해, 쉬프린은 KAL 007기 탑승객 모두가 목살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과 수화물들이 KGB에 의해 어디론가 옮겨지고 비행기 블랙 박스가 회수되었지만 소련 당국이 이를 맹렬하게 부인한 증거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하면서 쉬프린은 미 상원 외교 위원회의 소수당 소속 제시 헬름스 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그는 헬름스 의원에게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거기에서 옮겨졌으며, 블랙 박스들이 회수되는 것을 보았다는 현장 목격 증인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헬름스 의원은 즉시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토록 위임했다. 쉬프린은 이러한 토론들이 오가는 동안, 말이 새어나가 소련 측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소련 관영지, *이즈베스티야*가 즉시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1990년 12월 초, *이즈베스티야*는 "KAL 007의 미스터리" 라는 연재물을 발행했고 이는 그 다음 해까지 연장되었다.

1991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직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설리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쉬프린과 만나게 했으며 쉬프린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5월에 설리번은 위원회의 소수당 원내 총무 제임스 P. 루시어 박사, 빅터 페데이와 함께 돌아왔다. 티모시 마이어에 따르면, 2001년 4월 16일 *Insight* 지에 발행된 기사에 (<http://www.insightmag.com/news/213472.html>) 페데이 (또는 페디아) 가 상위 국방-정보 분석가라고 되어 있었다. 쉬프린은 이 세 사람에게 KAL 007에 대한 그의 기록과 정보를 넘겨주었다. 마이어는 다음 달인 1991년 6월 헬름스 상원 의원이 그 증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했다고 진술한다. 설리번은 쉬프린에게 그가 넘겨준 자료들이 CIA에 제출되었다고 통보했다.

헬름스 의원의 직원들은 CIA와 NSA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으며, 쉬프린이

넘겨준 정보와 *이즈베스티야* 연재물에 실린 초기 기사 정보, CIA와 "특별 정보" 그리고 NSA의 전자 감청에서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CIA는 쉬프린의 자료 중 몇몇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으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마이어에 따르면, FBI는 후에 빅터 페데이가 그 보고서의 작성자라고 단정했다고 한다. 이 작성자와의 개인적인 서신 결과, 마이어는 작성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쉬프린을 방문했던 그 세 사람 모두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페데이는 1992년에 사망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보고서의 기록에 대해 입을 열려하지 않고 있다.

쉬프린에 의해 입수되어 연구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헬름스 의원은 1991년 12월 10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KAL 007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아래를 참조.) 서신을 보낸지 몇 주가 지난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나 헬름스 의원이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조사 작업을 일체 중지시키게 된다. 루시어가 해임되고 버드 낸스 해군 장성이 그 대신 소수당 원내 총무로 임명되었다. 보수당 경향이 짙으며 *Insight* 잡지의 상위 편집자인 루시어는 헬름스 의원 관련한 그 일에 대해서나 그 기간에 대해 누구와도 일체 말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 1992년 2월 11일, 낸스는 쉬프린에게 서한을 보내, 그의 자료가 CIA에 제출되었으며 기밀 문서로 보관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는 또한 헬름스 의원이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복사본도 동봉했다.

쉬프린의 다른 자료들과 더불어 그 보고서는 CIA 내에 남아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손질된" (아래를 참조) 보고서 복사본을 한국 국회 야당 수반인 손 세일씨에게 넘겼다. 손 세일은 한국 국회 회기동안 그 보고서를 꽤 극적으로 공개하며, 그것이 KAL 007기가 모네훈 섬 근처 해안에 무사히 착륙한 후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처럼 어디론가 옮겨졌으며 아직도 살아 있을지도 모름을 보여주는 CIA 일급 비밀 보고서임을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92년 10월 26일에 일어났으며 그 당시 국제적으로 상당히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마이어는 잡지 *Insight*에 쓴 기사에서, CIA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낸스 장군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아마도 CIA에 제출된 자료 안에 포함되어), 아무런 행동 조치가 없는 데에 절망한 누군가가 손 세일에게 누설했을 거라고 제안한다.

보수 경향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Focus on the Issues"의 프로듀서이며 맥도날드 하원 의원의 개인적 친구인 마저리 프로반은 그녀의 프로그램에 쉬프린을 초대했으며, 기자 회견에서 그 보고서를 읽고 그녀에게 복사본을 보낸 국회의원 손 세일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복사본을 쉬프린에게 보내고 그는 1993년 3월 "일급 비밀 코드명 CIA 보고서 분석"을 연구 발행하게 된다. 그가 가진 보고서 복사본과 그의 분석 보고서는 Rescue 007: The Untold Story of KAL 007 and Its Survivors (한글본: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의 저자 버트 슬로스버그가 사용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원에 포함되어 있다.

설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고서는 78쪽 분량으로 활자체로 씌였으며 6쪽 분량의 차트가 실려있다. 그외, 다른 보잉 747 들이 추락한 경우 비행기 잔해와 그에 관해 제시된 공식적 발표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의 부속 서류를 각주로 보여주고 있다.

CIA 인장의 고무 도장 함께, 국회 안전 CIA 국 주소와 이름, 그리고 TO 옆의 빈 공간이 담긴 커버 페이지가 있다. 속 표지는 "접근이 제한된 민감 정보" 이라는 문구를 달고 있으며 그 다음 줄은 "미 연합 중국" 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뒤에는 빈 공간이 따라오는데 무엇인가가 쓰였다가 삭제된 흔적이 있으며 아마도 보고서를 작성한 조직이나 보고서를 요구한 조직의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나 그룹에 대한 언급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된 상태다. 속표지에서 시작하여 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전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비행기 잔해 편은 포함하지 않음) 에 또 다시 일급 비밀/코드명 이라는 고무도장이 찍혀있다. 이 예외적인 페이지는 바로 43쪽인 데 손 세일에게 누출되기 전 보고서 손질 당시 빠뜨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 단락 위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이와 같다: "1991년 6월 공화당 의원 연구 보고서 사용을 위한 미 국가 안전국 (NSA) 재분석이 요청되었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보고서가 미 상원 외교 위원회의 소수당 의원이었을 공화당 의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곳에서 확인이 되듯이, 미 국가 안전국 (NSA) 가 기밀급 KAL 007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조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사용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는 작성자들이 CIA 정보 뿐 아니라 일급 비밀 NSA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초안적 형태이지만, 그 보고서는 미 상원 외교 위원회 공화당 의원에 의해 작성된 다른 연구 보고서들, 예를 들어, 1991년 5월 23일에 작성된 "POW/MIA 에 대한 미국 정책 진단"과 같은 보고서와 비슷한 바탕을 지니고 있다.

중요성

보고서에 대한 공식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공화당 의원 연구서 는 초기 이즈베스티야 관영지 기사의 분석 자료 뿐 아니라 CIA 와 NAS 의 다른 정보와 함께 아브라함 쉬프린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중요성을 가지며, 이 모든 자료를 함께 묶어볼 때 KAL 007기가 모네훈 근처에 수상 착륙했음과 승객들, 승무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근거하기에 충분하게 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으며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응답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촉구했었다.

1991년 12월 10일, 보고서가 작성된 몇달 후, 헬름스 의원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보고서 내 자료가 신뢰성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서신에서 그는 "러시아 공화국 정부가 서신에 제기된 의문점들을 풀 수 있도록 이전 KGB와 국방부 파일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기된 의문점들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본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착륙한 정확한 위치, KAL 007기 비행과 관련된 모든 군사 무선 송신 사본, 생존한 승객들과 승무원 명단, 비행기에서 옮겨진 수화물과 다른 물품 목록, 소련 측의 탐색/구조 노력에 대한 보고서 복사본, 미국 하원의원 래리 맥도날드의 운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생존한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강금된 캠프에 대한 정보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

6 개월 후 1992년 6월 17일, 옐친 대통령은 KGB에서 공산당 중앙 위원회로 보내진 KAL 007기에 관련된 문서의 존재를 보고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그 메모에는 놀라운 진술이 담겨 있었는데, "이 문서들은 아주 잘 감추어져 있어 우리 후에 올 후손들이 이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라고 써여 있었다. (워싱턴 타임즈 6/18/1992)

이로부터 3 개월 후, 옐친은 공식적으로 블랙 박스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다. 쉬프린은 이 사실을 공개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고 이는 나중에 *이즈베스티야* 기사와 의원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이 된 바있다.

러시아 정부는 KAL 007기에 관련된 모든 전자 통신 내용 사본들을 1992년 12월까지 ICAO (국제 민간 항공 기구, UN 에이전시) 에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본들은 마침내 1993년 5월 28일 ICAO 보고서에 발표되었고 Rescue 007 (한글판: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책에 많이 인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소련 비밀 정보가 아브라함 쉬프린에게, 그에게서 제시 헬름스 의원과 그의 직원에게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쉬프린이 헬름스 의원의 직원과 가진 첫번째 대화 후 이 정보가 분명히 *이즈베스티야*지로 누설되었으며, 그 관영지는 재빨리 언론사 차원의 조사를 시행하면서 쉬프린이 공개한 사실 부분 부분과 함께 다른 부가적인 정보도 확인시켜 주게된다. (이 기사에 담긴 많은 자료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고 있을 무렵 이 상황을 헛갈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허위 정보"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들을 주의깊게 분석하면 사용가능하다). 이 정보들 - 쉬프린의 자료와 초기 *이즈베스티야*신문 기사-은 CIA와 NSA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와 부가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화당 의원 연구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에 근거해서, 헬름스 의원이 옐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일년 안에, 옐친 대통령은 헬름스 의원이 요청한 상당 부분에 응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늘날까지도 생존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곳에서 제시된 증거는 무시한 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전혀주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신들과 구명 조끼, 수화물들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믿을만한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안에 있는 자료 부분 부분들이 이미 이러하게 증명되었고 그 안의 다른 정보들도 부인할 만한 권위있는 설명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보고서가 매우 가치 있으며 거의 사실적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 보고서나 그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훼손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보고자 한다. 그러한 자료들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는 KAL 007기 사건의 모든 측면을, 특히 승객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지에 중점을 두고, 완벽히 조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생존자 가능성 부인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손 세일의 폭탄 선언 다음 날인 1992년 10월 27일 미 국무부 대변인 리처드 보우처의 발표가 이렇게 인용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생존자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으며 우리는 러시아 정부 발표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워싱턴 타임즈, 10/27/1992)